



“방송서 썸 타다 연인됐어요”

전현무·한혜진 교제 인정

다양한 예능에서 좋은 호흡을 보여온 방송인 전현무(41)와 모델 한혜진(35)이 실제로 교제 중이다.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27일 “전현무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현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알고 있고 있는 단계”라며 “두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전현무는 2003년 YTN 앵커로 입사해 이후 KBS에서 아나운서 생활을 했으며, 2012년 프리랜서 선언 후 각종 예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지난해에는 MBC에서 연예대상을 받으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한혜진은 1999년 제2회 서울국제패션컬렉션의 모델로 데뷔했으며, 최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다. 두 사람은 MBC TV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으며, 지난 설 연휴에는 SBS TV 파일럿 예능 ‘로맨스 패키지’에서도 MC로 호흡을 맞췄다. /연합뉴스

수양대군 모티브... 두 왕자의 전쟁같은 사랑

조선 수양대군과 양평대군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상 사랑을 가미한 사극이 선보인다. 연년생 형제인 두 왕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고, 이 바극적 삼각관계가 왕권을 향한 경쟁과 정쟁으로 이어졌다고 그리는 이야기다. TV조선이 4년 만에 선보이는 드라마 ‘대군-사랑을 그리다’다. 20부작으로, 오는 3월3일부터 주말 밤 10시50분에 찾아온다. 제작진은 27일 “계유정난을 통해 권좌에 오른 수양대군과 시서화에 능했던 동생 양평대군의 일생에서 착안, 그 누구도 몰랐던 치명적 러브 스토리를 담아낸다”고 밝혔다. 이어 “한 여인을 차지하고자, 그 여인을 지키고자 왕이 되려 했던 두 남자의 전쟁 같은 사랑 이야기”라며 “박제화되어 있는 실제의 역사에서 벗어나 결말을 알 수 없는 새로운 이야기로 긴박감을 조성해 대체역사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TV조선 ‘대군...’ 내달 3일 첫 방 윤시윤·주상욱·진세연 등 출연

KBS에서 역시 수양대군 시절을 무대로 한 팩션 사극 ‘공주의 남자’를 선보였던 김정민 PD가 TV조선으로 옮겨와 내놓는 작품이다. ‘공주의 남자’는 수양대군의 딸과 김종서의 아들이 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 러브 스토리를 펼치는 이야기로 인기를 끌었다. 김정민 PD는 “우리 드라마는 가상의 역사와 가상의 인물을 놓고 전개된다”며 “기존의 역사적 소재가 고갈되고 진부한 면이 있는데 가상의 역사를 시청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윤시윤이 은성대군 이휘를 연기한다. 조선 사교계 최고의 신랑감이자, 왕위 계승 서열 3위의 고귀한 신분과 잘 생긴 외모를 자랑하는 인기남이다. 시와 그림에 능한 그는 자신이 왕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기를 쓴다.

윤시윤은 “이휘는 운명의 한계를 탈피해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인물”이라며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 여자와 행복해지고자 노력한다”고 소개했다. 주상욱이 진양대군 이강을 맡았다. 야망이 넘치는 인물로,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처지가 늘 못마땅하고 억울하다. 부왕의 사랑과 관심이 세자인 형에게 쏠리자 왕제로 보이기 위해 강건한 무인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 은성대군과 진양대군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성자현은 진세연이 맡았다. 어릴 때부터 미모로 소문이 자자해 전국 팔도에서 구혼자가 줄을 잇는 인물이다. 고운 자태와 별개로 정의롭고 열정 넘치는 씩씩한 여성이다. 제작진은 “애증이 교차하는 왕실 형제의 브로맨스, 저아비를 사수하려는 규방 여인들의 시기와 질투, 국모의 자리를 향한 야심을 드러내는 왕실 여인들의 머리채 싸움을 관전 포인트로 삼는다”며 “스캔들로 얼룩진 실록의 이면을 파고드는 새로운 캐릭터 사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리 문화재 관리·보존 실태 민낯 고발

EBS ‘다큐시선’ 3·1절 특집 ‘찾지 못한 이름들’ 방영

EBS 1TV ‘다큐시선’은 삼일절을 맞아 3월1일 밤 9시50분 특집 ‘찾지 못한 이름들’을 방송한다. 프로그램은 조상이 독립운동가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애쓰는 후손들의 모습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직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 김철의 활약을 쫓아간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중국 상하이 총거우공원 의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유랑길에 오르게 된다. 그 대장정의 시작이었던 항저우에 일강 김철이 있었다. 임시정부의 주요 문서를 품어 안은 채 도피생활을 해야 했던 김철의 손에는 임시정부의 존망이 달려있었다. 그러나 그는 병에 걸려 해방을 보지 못하고 항저우에 묻힌다. 제작진은 27일 “김철의 행적을 소개하는 동시에 훼손되어가는 국의 소재 문화재 현황을 탐사하면서 우리 문화재 관리와 보존 실태의 민낯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큐시선’은 3월8일에는 삼일절 특집 두번째 편 ‘1920, 간도’를 방송한다. 참혹했던 간도참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삶을 전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and Program Name/Ti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day.

Table with 4 columns: Time Slot and Program Name. Lists programs on EBS1 such as '호기심 소녀 도트', '파프리카', '그림 그려줘 루이', etc.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A section providing daily horoscopes for the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for the date 2월 28일 (Wednesday, Feb 28th). Each sign includes a brief prediction and a '행운의 숫자' (lucky number).